

제 목	팬데믹 장기화,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소속 대학	미디어스쿨	소속 학과	언론방송융합미디어
학 번	2016	이 름	이**
이메일		연락처	

팬데믹 장기화,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들어가며

'Covid-19'가 한국에도 상륙했다는 뉴스가 처음 보도됐을 때, 학자들은 물론 언론과 국제 사회조차도 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혼란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갑작스레 마스크를 찾게 된 사람들은 늘었고, 평소에는 한산하게 느껴지던 약국에서 대기 줄을 목격하게 되는 드문 환경이 연출됐다.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찾은 사람들은 마스크의 재고가 모두 소진되자, 약국 점원이나 약사에게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팬데믹 상황이 1년 6개월을 향해간다. 지금은 어느 곳에서도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게 됐다. 적어도 이 나라에 마스크가 없어서 고함칠 일은 없어졌다. 그러나 두려움에 휩싸여 내뱉어지는 고함은 사라졌어도, 그 모습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질병상황 속에서, “나도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인간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순간을 말이다.

이 에세이는 'COVID-19'라는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가 퍼진 전국적으로 퍼진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에세이며 동시에 '팬데믹 코리아'의 모습을 담은 기록이다. 사스와 메르스, 에볼라를 거쳐 코로나가 한국을 덮쳤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이와 같은, 아니 이보다 강한 전염병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기록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 지에 대한 선례로 기억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용을 잃지 않아야 될 이유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길었는지 모를 서론에서 본론으로 펜을 옮긴다.

마스크 대란-분노의 시작

COVID-19가 등장하기 이전, 마스크는 홍콩혁명의 상징이었으나, 2020년을 기준으로 대규모 전염병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역장치로 그 의미가 변했다. 치료제는 물론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는 비말감염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는 최선의 대책이었다.

1회용 마스크마저도 그 공급량이 부족해, 사람들은 어제 쓴 마스크를 오늘도 빨아 써야 했다. 두려움에 휩싸인 개인들은 마스크를 확보하기위해 분투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적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사재기와 독점을 방지하고자, 일주일 기준 1인당 2개의 마스크만을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마스크를 빼돌려 이윤을 추구하거나, 국내에서 유통되어야 할 마스크를 국외로 팔기 위해 마스크의 상표가 표기된 박스를 수출용 박스에 옮겨 담은 속칭 ‘박스갈이’도 목격됐다. 지난 해 해외로 밀수출된 마스크만 403만장에 육박한다.

생명위협이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처음 목격되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이다. 문제 삼기에도 충분하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명제에도 반(反)한다. 그러나 옳고 그름이나, 윤리적 도덕적 잣대만이 문제해결의 능사는 아니다. 돈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 이념 아래에서 돈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시민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분노하지 않을 시민은 없다. 이 때부터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마스크생산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범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히고 심리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큰 정부’의 모습으로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공공재적 성격(팬데믹 상황에서는 마스크다.)을 띄는 재화를 확보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마스크를 일본과 미국이 Covid-19초기 단계에서 마스크를 원만히 확보하지 못해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다. 다행히도 이 두 국가에 비해서 한국정부는 올바른 대처를 했다. 마스크 공급량을 즉시 증가시켰고, 마스크 5부제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마스크를 분배했다. 추가로 정부의 대처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뭉치는 한국의 국민성도 한 몫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K-방역아래에서 국민들은 초기방역에 성공했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분위기가 고취되고 있었다.

추가로 국가는 언론의 보도에 대응할 준비도 해야 한다. 언론이란 무엇인가. 기사란 무엇인가. 그 속성을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 두려움과 분노가 담겨있다. 기사란 속성이 본디 ‘나쁜 소식’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마스크를 기부했다는 소식보다도 마스크를 빼돌렸다는 소식이 더 넓게 빠르게 사람의 감정에 침투한다. 국가는 공권력을 이용해 신속하게 공공재 불법유통을

단속 및 제재하고 이를 보도 자료로 배포해야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심리가 안정화 될 것이고 분노로 치달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이마저도 예방차원이기에 완전한 심리안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최선책일 뿐이다.

신천지발 감염확산-분노한 시민들의 희생양 찾기

2020년 2월은 말 그대로 교회탄압의 시작이었다. 적어도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그랬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집단감염이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십명대 내외를 유지하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순식간에 수백명을 넘어섰다. 감염병의 확산은 곧 두려움의 확산이다. 그리고 시민들은 악화되는 상황에서 슬퍼하기보다 분노하는 것을 선택한다.

“법리적인 걸 떠나서. 선량한 사람을 쇠뇌시켜 가정을 파괴하고 가출을 부추기는 악의 집단인 신천지 신도들은 인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 “신앙인이 자신의 신앙을 떳떳이 밝히지 못하고 음지에서 활동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도 종교도 아니므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02월 28일 신천지발 집단감염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사)에 달린 시민들의 댓글이다. 국민적 공분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 즉각 공권력을 투입했다. 일부 법학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때로는 법리와 대중이 상식이라 여기는 이성간의 간극은 그 거리가 멀다. 세상은 세분화돼있고, 어떤 이들은 종교의 신념을 인간의 이성 위에 두는 경향도 있다. 이마저도 국가가 보장하는 자유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로 하루에 “너 신천지냐”라는 문자를 150통을 받은 교인도 존재하니, 신천지 교인은 교인이라는 이유로 다치고 있었고, 시민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분노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 중 신천지교회에 문제지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드물 것이다. 슬쩍 들여다보더라도 신천지는 문제가 많아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지적들 중 문제해결을 위한 이성적 판단은 찾아볼 수가 없다. Covid-19보다 더 두려운 것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상황을 목격하는 나는 되려 코로나발 집단감염으로부터 시작된 분노감정의 연쇄효과가 더 두려웠다. “너 신천지냐”는 문자를 받았다는 교인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대중들은 비난의 대상을 찾고 있었다. 희생양 찾기. 즉,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이는 경계해야 할 몫이었다. 누구도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기에 사람을 표적 삼아 비난하는 것이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사람간의 심리적 거리를 벌려놓기 때문이다.

이태원클럽발 집단감염-분노는 혐오가 된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던 14세기. 유럽인들은 마녀가 흑사병을 발생시킨 원인으로 규정했다. 마녀를 제거하면 이 흑사병으로부터 안전해질 것이라는 인지를 믿기 시작했다. 이 역사에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손사래 칠 일이다. 어쩌면 비소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7세기가 더 지난 21세기에도 이런 상황이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벌어졌다.

지난 해 5월 이태원클럽발 집단감염은 큰 화제였다. 집단감염의 중심에 있었던 성소수자들은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걸 꺼려,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갔다. 단연 방역이 도움이 될 리 없었다. 여기에 대중들은 성소수자들을 향한 분노를 터뜨렸다. 이런 시기에 클럽을 가는 것을 문제 삼기도 했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비난과 혐오를 분출했다. Covid-19문제를 넘어 에이즈 이야기까지 거론됐다. 성소수자들은 이 사태의 표적이 됐다.

2020년 2월의 코로나사태의 희생양이 신천지교인들이었다면, 5월에 희생양은 성소수자들이었다. 코로나19가 종교라는 신념의 강력함을 들춰줬다면, 5월에는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비난과 혐오로 얼룩진 미디어 댓글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감정이 차지하는 요소가 크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다. 성소수자들에게 관참으니 나와서 검사받으라는 의견 역시도 소수였다.

두 차례의 집단감염을 통해서 대중들은 점점 분노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코로나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레드라는 언론의 표현이 적절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으니 말이다. 이는 대중들의 속성이 점점 감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천지 집단감염이 희생양 찾기에 전초였다면, 이태원 집단감염은 혐오의 시작이었다. 특정한 타인의 존재가 내게 위협이 되므로 이를 제거해야한다는 논리의 혐오는 이태원의 성소수자들을 발판 삼아 미디어를 타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사람과 거리 두고, 미디어와 가까워질 때

굵직한 대규모 집단감염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Covid-19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미디어였다. 그 중에서도 언론을 통해 다량의 정보를 얻고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정보 습득경로로 가장 많이 이용된 콘텐츠는 뉴스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코로나19 이후 미디어 콘텐츠 이용량 변화]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포털 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로 나타났고 텔레비전이 가장 신뢰받는 경로로 나타났다. 즉, 전염병 위기상황에서는 언론과 방송의 파급력과 전달이 강해짐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스마트폰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반경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미디어와 친숙해졌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미디어 자주 이용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력감소가 아닌, 미디어이용량 증가로 인한 감정변화와 심리변화다.

미디어라는 심연

독일철학자 니체는, “사람이 심연을 들여다볼 때, 심연도 사람을 들여다본다.”고 말했다. 현대의 심연은 무엇인가. 나는 감히 현대의 심연은 미디어라고 정의하겠다. 미디어 세상에는 심연의 속성을 지닌 온갖 ‘나쁜’ 것들이 넘쳐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이용량이 증가한 포털 뉴스부터 들여다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뉴스란 본래 그 속성이 나쁜 소식이다. 지금 당장 핸드폰을 켜서 포털 사이트를 보아도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기사 밑에 댓글 역시도 마찬가지다. 타인에 대한 비방과 비난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다수다. 잘 보면 미디어의 속성은 인간 내면에 깃든 심연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범죄, 부정, 비 윤리와 같은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 내 앞으로 전해진다.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심연을 마주할 수 있다. 미디어를 심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문제는 심연이 우리를 들여다본다는 것. 즉 미디어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데에 있다. 뉴스 프레임은 미디어를 통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전파되며, 이를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방식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이준웅, 2001). 즉, 미디어를 통해서 감정이 섞인 기사, 뉴스, 콘텐츠, 텍스트를 보게 된다면 그에 맞게끔 인식과 태도 감정도 변화된다는 해석이다.

특히 감염병이라는 부정적인 소식이 증가할수록 우리의 감정 역시도 부정적으로 변한다. 프레임의 종류에 따라 유발되는 감정도 다를 수 있다. 어떤 이슈에 대한 이익 프레임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손실 프레임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Igartua et al., 2011; Shen & Dillard, 2007)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됐다. 대중들의 활동범위 제한과 경제적 손실의 뉴스가 계속되는 지금 지금 우리 사회의 시민들은 분노에 감염돼 있다.

미디어의 속성은 심연임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명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있으나, 미디어가 고도로 발달된 시대에서 정신과 심리, 감정적인 부분까지 보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미디어를 잘 읽어내자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최소한 분쟁을 유발하는 뉴스나 또는 분노나 두려움을 파는 뉴스를 구별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역시도 수많은 개인들에게 노력이 요구된다. 미디어리터러시라는 교육을 원하지 않는 개인이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대중들에게는 효과가 미약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선책으로는 분노한 시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데에 있다. 선동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문화산업’과와 ‘스포츠산업’은 분노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국가위기상황에서 스포츠가 자국민들에게 힘을 줬던 사례가 여럿 있다. IMF당시 ‘박찬호’와 ‘박세리’가 그 사례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치적 이익집단에 의해 움직여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들의 감정이 분노로 치달을 때에 문화투자는 더더욱 필요하다. 다양한 콘텐츠들이 필요한 시기다. 다행히도 한국은 IT인터넷망이 광범위하게 구축돼있다. 국가단위의 투자와 지원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된다. 방송국에서는 분노 감정의 콘텐츠보다는 평화와 선한 영향력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 집중해야한다. 특히 공영방송이라면 더더욱 그래야한다.

마치며

시민들의 감정이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의 연속은 불행이다. 팬데믹 장기화는 사람과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넘어 심리적 거리마저도 멀어지게 만들었다.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사람간의 신뢰는 물론 유대감마저도 논할 수 없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팬데믹 상황 동안 다수의 사람들은 서로의 이면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얽히고설킨 사회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됐다. 동시에 우리는 모두 약한 사람들이기에 서로를 지켜야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어쩌면 팬데믹은 우리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기도 하다. 그 '무엇'이란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아닐까.

*참고

- ▶한스 로슬링(2019.02), 팩트풀니스
- ▶마스 누스바움(2020.09), 타인에 대한 연민
- ▶르네 지라르(2007.10), 희생양
- ▶한국언론진흥재단(2020.12),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
- ▶임인재(2020.08), 재난 보도 프레임이 수용자 감정과 인지에 미치는 영향 : 구체적 감정의 매개효과, 미디어 양식과 위험 신호가능성의 조절효과 중심

※ 선정된 에세이는 자료집으로 제작 가능합니다.